

베이비부머의 은퇴주택 계획을 위한 주거생활상과 주거생활지원서비스 조사연구*

- 재미 한인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

Baby Boomers' Residential Life Images and Supportive Service Needs at Post-retirement Homes

- With a Focus on Korean-American Immigrants -

Author 김미희 Kim, Mi-Hee / 정희원,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
김석경 Kim, Suk-Kyung / 정희원, Michigan State University, Interior Design,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The principle of aging-in-place should be fundamental in designing post-retirement homes to support baby boomers' healthy aging in their current living conditions. This study investigated Korean-American baby boomers' opinions about their life images in their post-retirement homes and the needs for supportive services therein.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and a total of 247 responses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es. As the most important life image for their post-retirement homes, baby boomers emphasized the living environments offering various recreational activities. They indicated the post-retirement homes close to their children or family members as the next important life image. These opinions differed depending on thei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baby boomers with higher-income preferred housing environments offering diverse recreational activities while those with lower-income preferred the housing close to more employment opportunities. In terms of supportive services available in the post-retirement homes, they wanted 'healthcare assistance services' and 'diverse recreational programs.' Gender, educational attainment, and annual income affected their preferences in these services, though.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concluded that post-retirement housing environments should create spaces to accommodate various recreational activities and include places for them to work in near-home environments. In the community, various need-based customized recreational activities and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planned considering different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baby boomers. All these considerations will provide supportive residential environments for their successful aging in place.

Keywords 베이비부머, 재미 한인, 주거생활상, 주거생활지원서비스
Baby boomers, Korean-American Immigrants, Residential Life Images, Supportive Service Need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응하는 사회구조와 서비스 계획의 필요성은 1980년 이후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¹⁾ 특히, 기존의 노후세대와는 다른 사회경제적인 특성을 보이는 베이비부머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지원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²⁾

특히 은퇴 후에 많은 시간을 주택과 주변지역에서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베이비부머들의 주된 거주 장소인 주택 내부와 지역사회의 시설들이 이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어떻게 계획되고,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들이 노년기를 맞이하면서 노후에 거주하게 싶은 주거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거생활상 혹은 주거가치관은 무엇인지를 알아 볼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된

- 1) Kim, S., Lee, Y., & Yim, M. Hi-tech amenities for the elderly: The technological assistance needs of elderly Koreans aging at home.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23(3), 2009, pp.204-226
- 2) 대한주택공사, 수요특성을 고려한 인텔리전트 아파트 개발연구 II, 서울, 건설교통부, 2001

* 이 논문은 2011년도 전남대 연구년교수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다. 또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받고 싶어 하는 주거생활 지원서비스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향후 노인주택의 시장의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인주택의 개발목표에 있어서 주요한 특성으로 제시되었던 에이징인 플레이스(aging-in-place) 개념을 토대로 오랫동안 익숙해진 환경에서 가능한 한 그대로 머물면서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거주 장소가 정해지면 노화과정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융통성 있게 제공받으면서 삶의 경험이 누적되어 온 장소성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주거환경이 필요하다.³⁾ 즉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커뮤니티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과거의 노인과는 달리 사회적 참여와 활동을 중시하며 활기찬 노후(active aging)를 보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⁴⁾ 늘어난 평균수명으로 제3의 인생기에 접어드는 베이비부머들은 사회적 활동과 참여를 중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전세대와는 달리 경제력을 갖추고 있어서 이들의 은퇴는 활기찬 노후개념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⁵⁾ 따라서, 이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의 내부 환경과 아울러 커뮤니티 내에서 필요한 생활지원서비스 종류와 그 요구를 파악하여 가정과 지역사회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최근 한국의 주택 건설산업은 다양한 노인거주자들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⁶⁾ 특히 해외에서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은퇴 후에 귀국을 고려하고 있는 재미 베이비부머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⁷⁾ 그러나, 이들이 어떠한 주거생활상과 주거생활지원 서비스를 원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은퇴 후 희망하는 주거생활상과 주거지원 서비스를 파악하여, 이들의 노후를 위한 주택의 계획요소를 제안하고, 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 계획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미국 내 거주하는 한국인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은퇴 후 거주를 희망하는 주거생활상 즉 주거에 대한 가치관과 주거생활지원서비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배경특성에 따라서 선호하는 주거생활상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결과는, 한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나,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재미 한인 베이비부머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에이징인 플레이스(aging-in-place)를 표방하는 주거환경을 계획하고자 하는 디자이너와 고품진화 주거디자인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자하는 주택산업체에게 상품개발전략과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 조사대상의 표집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본 설문조사의 대상은 1955년-1963년 사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한인회 정보 사이트를 활용하여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뉴욕 (New York), 워싱턴 (Washington DC), 시카고 (Chicago), 달라스 (Dallas), 샌프란시스코 (San Francisco)와 미시간 주의 그랜 라피드(Grand Rapids), 랜싱(Lansing), 디트로이트 (Detroit) 등에 위치한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유의적인 표집방법을 이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우선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조사도구를 수정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12년 6월 30일에서 7월 7일 사이에, 미시간(Michigan) 주 랜싱(Lansing)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베이비부머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12년 7월 21일부터 2012년 9월 9일 사이에 직접 방문하거나 지인을 통하여 설문을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조사 실시결과, 총 254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응답이 누락되거나 응답내용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를 제외한 후, 247부를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2) 조사도구 및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주거생활상’은 노인에게 풍요로운 주거생활상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은퇴 후에 살고 싶은 주거환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주거생활상에 관한 조사도구는 고품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4)의 ‘풍요로운 주거생활상’을 근거로 구성하였다. ‘주거생활지원서비스’는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과 지역사회 안에서 받고 싶은 생활지원서비스를 의미하며 이 조사도구는 광인숙(2008)과 김혜연 외(2010)의 논문을 참고하여 미국상황에 맞추어 재구성하였다. 노년기에 보낼 주택계획 시 고려사항은 오찬옥(2002)⁸⁾ 대한주택공사(2007)⁹⁾ 등을 참조하여 6개 항목을 선택하여 그 중요도에 대해 4점 리커드 척도를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주

3) 주거환경교육연구회, 주거환경의 계획과 평가, 교문사, 2011, p.58
4) 광인숙, Active Aging을 위한 활동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8, pp.31-42
5) 김혜연·이연숙·윤혜경,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선호하는 주택특성에 관한 연구 : 서울 강남지역 공동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1(5), 2010, pp.83-92
6) Kim, S., Lee, Y., & Yim, M., op.cit., p.205
7) 김미희·김석경, 베이비부머의 라이프스타일과 은퇴 후 선호하는 주거특성: 재미 한인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4(3), 2013, pp.85-94

8) 오찬옥, 노인주택을 가능하게 하는 주거디자인의 방향, 연세대학교 밀레니엄환경디자인연구소 국제심포지엄 발표집, 2002, p.138
9)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노인주택모델, 2007, pp.9-10

거생활상과 주거생활지원서비스 각각에 대한 빈도와 가중치를 이용한 순위측정을 하였고 배경 특성에 따라서 선호하는 주거생활상과 주거생활지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였다.

2. 문헌고찰

2.1. 베이비부머와 주거생활지원서비스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베이비부머에 포함되는 1955년에서 1963년생 인구는 모두 714만 명에 이르며 이는 총 인구의 14.6%에 달하는 수치이다.¹⁰⁾

노인을 위한 바람직한 주거환경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개념 중인 에이징 인플레이스(aging-in-place)는 살던 주택과 동네에 그대로 살면서 늙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세계 노인인구 90% 이상이 추구하고 있는 이상적인 노인주거복지의 방향이다.¹¹⁾ 이 개념은 같은 주택에서 계속 살면서, 기존의 거주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기본개념으로 한다. 즉, 대다수의 노인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익숙해진 환경에 그대로 머물면서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바라는 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노화특성에 맞출 수 있는 주거환경구축과 서비스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에이징 인플레이스 개념을 기본으로, 노인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는 주된 연구주제로 활용되어 왔다.¹²⁾ 또한, 에이징 인플레이스의 개념이 주택에서 지역사회 또는 커뮤니티로 확대되어서, 주택을 바꾸더라도 같은 지역사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기존의 주거환경과 관련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다.¹³⁾ 따라서, 에이징 인플레이스에 대한 최근 연구는 거주자의 노화를 지원하는 융통성 있는 단일 주택의 계획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와 공동시설에 대한 연구까지를 포함하고 있다.¹⁴⁾

활기찬 노후(Active aging)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회 및 경제체제 안에서 생산적인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사람이 나이가

늘어가도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 참여 및 안전의 기회를 위해 자원들을 최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¹⁵⁾ 하위구성요소로서 건강·사회서비스, 행동적 요소, 물리적 환경, 개인적 요소, 사회적 요소, 경제적 요소 등이며 배경요인인 문화와 성별로 구성된다.¹⁶⁾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한 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거생활지원서비스는 과거세대와는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견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베이비부머 중 서울강남의 공동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은퇴 후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조사한 연구에서는 ‘여가생활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가 5점 만점에서 4.2점으로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은 ‘치료돌봄서비스’로 4.0점이었다.¹⁷⁾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활기찬 노후를 희망하는 베이비부머들은 생활지원서비스 중 여가생활프로그램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2.2. 노후에 바람직한 주거생활상

노인을 위한 풍요로운 주거생활상이란 “생활의 자유로움을 최대한 지원하며, 근접성이 확보되는 한편, 주체로서의 선택가능성이 확보된 주거”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¹⁸⁾

바람직한 주거생활상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환경의 건강성을 추구하는데 이는 고령자가 생활의 자유로움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되는 환경(privacy and independence)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노인이 편리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행동반경이 과거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이전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려면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고령자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위해서는 노인 스스로가 어떻게 주거를 해결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의도나 계획을 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주체로서의 선택 가능성이 확보된 환경(social network)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¹⁹⁾ 따라서, 주거지원서비스와 더불어, 노인들에게 중요한 주거생활상을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원하는 주거환경의 계획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다.

이러한 풍요로운 주거생활상 개념에 근거하여 고령진입층에게 노후 바람직한 주거생활을 위해 중요한 것 중 ①일거리가 있는 곳에 거주, ②자녀친지와 가까이 거주,

10) 김혜연 외, op. cit., p.84에서 재인용.

11) 건설교통부·한국주거학회, 노인가구의 자립생활증진을 위한 주택개조기준 개발 및 보급방안 연구, 2005, p.23

12) Ahn, M., Future housing plans for older residents in rural Tennessee areas: Focusing on older adults aged 80 and older, Proceedings of 2010 Housing Education and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pp.40-45, 2010

13) Partners for Living Communities. Aging in Place Initiative, 2013, http://www.nw.org/network/comstrat/agingInPlace/documents/agingInPlaceFAQ_000.pdf.

14) Smith, C. The challenges of intersecting housing and healthcare for the elderly: A view from both sides, 2002 <http://www.nw.org/network/comstrat/agingInPlace/articles.asp>.

15) 광인숙, op. cit., p.33

16) Ibid., p.37

17) 김혜연 외, op. cit., p.90

18) 고령화 미래사회 위원회, 고령사회에 대비한 주거환경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04, p.34

19) Ibid., pp.34-35

③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공간에 거주, ④여가생활이 가능한 주거환경에 거주, ⑤불편함이 없는 주택에 거주하는 것 중 한 가지 만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한 결과, 도시와 농촌거주라는 지역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 모두 ‘불편함이 없는 주택’을 가장 많이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⁰⁾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김미희(2006)의 연구에서도 은퇴 후 주거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에서, 여가생활이 가능한 주변 환경(36.3%)이 제일 중요하다고 나타났고, 불편함이 없는 주택(34.3%)이 두 번째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또한 식사, 청소, 외출도움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선호비율도 10.0% 정도로 나타나 은퇴 후 주택에서 가사서비스 제공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임을 확인하였다.²¹⁾

중년층인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주거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보면, 대체적으로 주택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가사서비스를 제공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김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후 살고 싶은 주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즉 주거생활상 혹은 주거가치관은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3. 은퇴 후 선호하는 주거생활상과 주거생활서비스의 일반적 경향

3.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직업, 결혼상태, 동거상태, 동거 가족 수, 연평균 수입, 학력, 본인체감 생활수준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택의 형태, 소유형태, 규모, 가격과 거주기간, 주변지역특성 등 거주현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성별은 남성 40% 여성이 60%로 나타났으며, 기혼자가 90% 이상, 가족 수는 주로 2-4명이었고 대졸이상이 70% 정도로 고학력자였으며, 연평균수입은 10만 달러 미만이 70% 정도로 대부분이

자신의 생활수준을 중류라고 생각하였다. 미국 통계청 (US Census Bureau)(2012)에 따르면, 2011년 미국의 가구당 연평균수입은 52,762달러, 대졸이상은 28.2%로 나타나서, 본 연구의 응답자는 미국평균보다 높은 수입과 학력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거주현황을 보면 60% 정도가 단독주택 단지의 단독주택에 거주하였으며 그 규모는 1500ft²이하부터 3001ft²이상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고, 주택가격은 20만 달러부터 30만 달러 미만이 30% 정도로 제일 많았다. 응답자의 반 이상은 현재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가격도 2011년 미국 평균주택가격인 186,200달러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²⁾

3.2. 주거생활상의 일반적 경향 및 선호순위

주거생활상은 은퇴 후 살고 싶은 주거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한 번에 응답하게 한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면 1순위에서는 ‘여가생활이 가능한 주거환경’이 36.5%로 응답률이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은 ‘자녀나 친지가 가까이 있는 곳’과 ‘불편함이 없는 주택’이 18.7%로 비슷했다. 2순위에서는 역시 ‘여가생활이 가능한 주거환경’이 27.4%였고 그 다음은 ‘자녀나 친지가 가까이 있는 곳’이 24.4%로 큰 차이가 없었다. 3순위에서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가 25.9%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은 ‘자녀나 친지가 가까이 있는 곳’이 22.4%였다.

선호순위는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각각의 순위에 따라 다른 가중치²³⁾를 주어서 정하였다. 이 가중치를 근거하여 우선순위를 매겨보니 ‘여가생활이 가능한 주거환경’이 3점 만점에 1.77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자녀나 친지가 가까이 있는 곳’에 대한 선호였으며, 세 번째는 ‘불편함이 없는 주택’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내 중년층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김미희(2006)의 연구결과에서도 ‘여가생활이 가능한 주거환경’에 대한 중요도가 제일 높았다.<표 1> 참조)

<표 1> 은퇴 후 선호하는 주거생활상의 분포 및 순위 (N=247)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가중치 (N=243)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합계점수	평균 (S.D.)	순위
일거리가 있는 곳	40	16.6	23	9.8	27	11.6	195	0.80 (1.158)	5
자녀·친지가 가까이 있는 곳	45	18.7	57	24.4	52	22.4	299	1.23 (1.123)	2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	16	6.6	43	18.4	60	25.9	203	0.84 (.982)	4
여가생활이 가능한 주거환경	88	36.5	64	27.4	43	18.5	429	1.77 (1.149)	1
불편함이 없는 주택	45	18.7	44	18.8	46	19.8	268	1.10 (1.179)	3
기타	7	2.9	3	1.3	4	1.7	22	0.09 (.506)	6
계	241	100.0	234	100.0	232	100.0			

20) Ibid., p.38

21) 김미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중년층의 노후 주거선호 : 광주지역의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형을 대상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17(1), 2006, pp.117-126

22) US Census Bureau (2012), State & County QuickFacts, <http://quickfacts.census.gov/qfd/states/26000.html>.

23) 가중치는 각각의 순위에 따라 다르게 가중치를 주었는데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3순위는 1점, 선택 안하는 것은 0점을 주어 계산

<표 2> 은퇴 후 선호하는 주거생활지원서비스 분포 및 순위 (N=247)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가중치 (N=236)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합계점수	평균 (S.D.)	순위
식사지원서비스	38	16.3	25	10.7	24	10.4	203	0.86 (1.259)	3
건강지원서비스	116	49.8	55	23.5	29	12.6	481	2.05 (1.122)	1
가사지원서비스	10	4.3	30	12.8	36	15.6	134	0.57 (.918)	5
여가생활프로그램	47	20.2	78	33.3	60	26.0	353	1.50 (1.058)	2
심리상담프로그램	3	1.3	11	4.7	6	2.6	44	0.19 (.590)	6
교육프로그램	16	6.9	34	14.5	61	26.4	175	0.74 (.921)	4
공과금 납부 서비스 프로그램	1	0.4	1	0.4	11	4.8	18	0.08 (.324)	7
기타	2	0.9	0	0.0	4	1.7	10	0.04 (.305)	8
계	233	100.0	234	100.0	231	100.0			

3.3. 주거생활지원서비스의 일반적 경향과 선호 순위

주거생활지원서비스는 은퇴 후 살고 싶은 주택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한 번에 응답하게 하였고 그 분포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면 1순위에서 응답률이 제일 많은 것은 ‘건강지원서비스’로 49.8%였고 그 다음은 ‘여가생활 프로그램’이었다. 2순위에서는 ‘여가생활 프로그램’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건강지원서비스’이었다. 3순위에서는 ‘교육프로그램’과 ‘여가프로그램’이 비슷하게 높았다.

가중치는 주거가치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배점하였다. 가중치를 주어서 우선순위를 매겨보니 ‘건강지원서비스’는 3점 만점에 2.05로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은 ‘여가생활 프로그램’으로 1.50이었으며 둘 다 중간이상의 선호를 보여주었다. 세 번째는 ‘식사서비스’였다. 서울 강남의 공동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비스에 대한 연구조사(김혜연 외, 2010)에서도 ‘여가생활프로그램’과 ‘치료돌봄서비스’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3.4. 주거계획 시 고려사항의 일반적 경향

은퇴 후에 보낼 주택계획 시 고려사항을 <표 3>과 같이 6개 항목에 대하여 4점 리커르트 척도로 그 선호도를 문의 하였다. 여기에 포함된 계획요소는 크게 실내 계획요소와 주택계획요소 나눌 수 있다. 이중 실내계획요소로는 ‘거동이 불편한 거주자를 위한 무장애 주택디자인’과 ‘홈네트워킹과 홈오토메이션 기능이 잘 갖추어진 주택’, 그리고 ‘에너지 절약형 주택’이 포함되었다. 기타 주택계획 요소로는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주택’, ‘관리와 수리가 편리한 주택’, ‘산책로가 잘 되어 있는 주거단지’가 포함되었다. 계획요소별 평균값은 살펴보면, 응답자는 모든 요소를 3점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주택’, ‘관리와 수리가 편리한 주택’, ‘산책로가 잘 되어 있는 주거단지’에 대한 중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하여 합계를 낸 다음 평균값을 구한 것이다.

<표 3> 은퇴 후 주택의 중요한 계획요소의 평균 (N=247)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주택	239	3.59	.519
에너지 절약형 주택	239	3.33	.605
관리와 수리가 편리한 주택	240	3.40	.525
산책로가 잘 되어 있는 주거단지	239	3.39	.546
홈네트워킹과 홈오토메이션 기능이 잘 갖추어진 주택	238	3.11	.675
거동이 불편한 거주자를 위해 휠체어나 이동보조기구의 사용을 고려한 무장애 주택 디자인	237	3.28	.638

* 4점 만점 리커르트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도가 높음

4. 베이비부머의 배경특성과 은퇴 후 선호하는 주거생활상과 주거생활지원서비스

4.1. 베이비부머의 배경특성과 선호하는 주거생활상

베이비부머의 배경특성인 성별, 직업, 학력, 연평균 소득, 주택규모, 주택가격 중 주거생활상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변수는 학력, 연평균 소득, 주택가격이었다.(<표 4> 참조)²⁴⁾ 이러한 주거생활상 항목 각각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변수만을 선정하여 one-way ANOVA 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배경특성과 은퇴 후 선호하는 주거생활상 One-way ANOVA 분석 요약

구분	일자리가 있는 곳	자녀·친지가 가까이 있는 곳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	여가생활이 가능한 주거환경	불편함이 없는 주택
성별	n.s	n.s	n.s	n.s	n.s
직업	n.s	n.s	n.s	n.s	n.s
학력	***	n.s	n.s	n.s	n.s
연평균 소득	n.s	n.s	n.s	*	n.s
주택 규모	n.s	n.s	n.s	n.s	n.s
주택 가격	*	n.s	n.s	n.s	n.s

* p<.05, *** p<.001, n.s.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함

다음으로는 응답자의 배경특성별 선호하는 주거생활상을 파악하기 위해, Sheffe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평균 소득이 5만 달러 미만 집단은 여가생활이 가능한

24) 노인주거선호에 대한 선행연구(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 2004; 대한주택공사, 2007:2004) 연구에서 차이를 보인 변인을 선정함

주거환경에 대하여 3점 만점의 선호도 중 1.48점을 나타냈고, 10만 달러 이상 집단은 1.97점으로 나타났다. 즉 10만 달러 이상 집단이 5만 달러 이하 집단에 비하여 '여가생활이 가능한 주거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주택가격에 따라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 주거생활상은 '일자리가 있는 곳'이다. 전체적으로 중요도에 대한 응답자의 점수는 높지는 않지만 주택가격이 20만 달러 이하 주택의 거주자 집단이 주택가격 40만 달러 이상 주택거주자에 비하여 '일자리가 있는 곳'에 대하여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에 따라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 노후에 선호하는 주거생활상은 '일자리가 있는 곳'이었다. <표 5>를 보면 고졸이하 집단이 대졸집단에 비하여 '일자리가 있는 곳'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평균 소득에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주거생활상은 '여가생활이 가능한 주거환경'이다.

<표 5> 배경특성에 따른 은퇴 후 선호하는 주거 생활상

학력		M (사례 수)	Sheffe
일거리가 있는 곳	고졸 이하	1.14(78)	a
	대졸	.53(118)	b
	대학원 이상	.93(43)	ab
	계	.80(239)	
F값		7.362***	
연평균소득		M(사례 수)	Sheffe
여가생활이 가능한 주거환경	50,000달러 미만	1.48(73)	a
	50,000달러 이상~100,000달러 미만	1.71(84)	ab
	100,000달러 이상	1.97(73)	b
	계	1.72(230)	
F값		3.392*	
주택가격		M (사례 수)	Sheffe
일거리가 있는 곳	200,000달러 미만	1.26 (46)	a
	200,000달러 이상~300,000달러 미만	.88 (58)	ab
	300,000달러 이상~400,000달러 미만	.79 (34)	ab
	400,000달러 이상	.53 (66)	b
	계	.84 (204)	
F값		3.655*	

* p<.05 ** p<.01, Note: 1순위 응답항목 3점, 2순위 응답항목 2점, 3순위 응답항목 1점, 무선택 항목은 0점으로 처리하여 산출된 평균값(M)임.

4.2. 베이비부머의 배경특성과 선호하는 주거 생활지원서비스

베이비부머의 배경특성인 성별, 직업, 학력, 연평균 소득, 주택규모, 주택가격 중 은퇴 후 선호하는 주거생활지

<표 6> 배경특성과 은퇴 후 선호하는 주거생활지원서비스 One-way ANOVA 분석 요약

구분	식사지원 서비스	건강지원 서비스	가사지원 서비스	여가생활 프로그램	심리상담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공과금 납부서비스
성별	n.s	n.s	n.s	n.s	*	n.s	n.s
직업	n.s	n.s	n.s	n.s	n.s	n.s	n.s
학력	n.s	n.s	n.s	n.s	n.s	**	n.s
연평균 소득	n.s	n.s	n.s	n.s	n.s	**	n.s
주택 규모	n.s	n.s	n.s	n.s	*	n.s	n.s
주택 가격	n.s	n.s	n.s	n.s	n.s	n.s	n.s

* p<.05, ** p<.01, n.s.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함

원서비스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 학력, 연평균 소득, 주택규모 등이었다.<(표 6) 참조> 주거생활지원서비스 항목 각각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변수만을 선정하여 t-검증과 one-way ANOVA, Sheffe테스트 결과를 <표 7>로 정리하였다.

<표 7> 배경특성에 따른 은퇴 후 선호하는 주거생활지원서비스

성별		M (사례 수)	표준편차
심리상담 프로그램	남성	.09 (95)	.439
	여성	.26 (137)	.676
F값		-2.195*	
학력		M (사례 수)	Sheffe
교육 프로그램	고졸 이하	.43 (76)	a
	대졸	.93 (113)	b
	대학원 이상	.81 (43)	ab
	계	.75 (232)	
F값		7.058**	
연평균 소득		M (사례 수)	Sheffe
교육 프로그램	50,000달러 미만	.48 (69)	a
	50,000달러 이상~100,000달러 미만	.74 (82)	ab
	100,000달러 이상	.96 (71)	b
	계	.73 (222)	
F값		4.973*	
주택규모		M (사례 수)	Sheffe
심리상담 프로그램	42.평 이하	.30 (66)	a
	43평~84평	.04 (55)	ab
	85평 이상	.20 (50)	b
	계	.19 (171)	
F값		3.114*	

* p<.05 ** p<.01

성별에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은퇴 후 선호하는 주거생활지원서비스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이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표 7) 참조> 학력에 따라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 주거생활지원서비스는 '교육프로그램'이었다. <표 7>의 Sheffe 테스트결과에 의하면 대졸집단과 고졸이하집단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데 대졸집단은 고졸이하집단에 비하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가 강하게 나타났다.

연평균 소득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 주거생활지원서비스는 '교육프로그램'이었다. 연평균소득이 10만 달러 이상 집단은 5만 달러 미만의 집단에 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더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규모에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은퇴 후 선호하는 주거생활지원서비스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이었다. 전체적으로 높은

선호를 보이지는 않지만 43명 이하 주택 거주 집단은 85명 이상 규모의 주택에 거주하는 집단에 비하여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를 더 원하는 경향이 있었다.

4.3. 베이비부머의 배경특성과 선호하는 주택계획 시 고려사항

베이비부머의 배경특성인 성별, 직업, 학력, 연평균 소득, 주택규모, 주택가격 중 주택계획 시 고려사항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 학력, 연평균 소득이었다. (<표 8> 참조) 이중 주택계획 시 고려해야 할 항목 각각에 전체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변수만을 선정하여 t-검증과 one-way ANOVA, Sheffe 테스트 결과를 <표 9>로 제시하였다. <표 9>를 보면 모든 계획요소는 성별에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여성들이 남성 응답자들에 비하여 모든 계획요소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학력에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계획요소는 '무장애 주택디자인'이었는데 대학원 이상 집단은 대졸집단에 비하여 무장애주택디자인을 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주택' 요소는 연평균 소득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연평균 소득 10만 달러 이상의 집단이 5만 달러 미만집단에 비하여 주택의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성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

<표 8> 배경특성에 따른 은퇴 후 주택의 중요한 계획요소 One-way ANOVA 분석결과 요약

구분	성별	직업	학력	연평균 소득	주택 규모	주택 가격
거동이 불편한 거주자를 위해 휠체어나 이동 보조기구의 사용을 고려한 무장애 주택디자인	*	n.s	*	n.s	n.s	n.s
홈네트워킹과 홈오트메이션 기능이 잘 갖추어진 주택	**	n.s	n.s	n.s	n.s	n.s
에너지 절약형 주택	**	n.s	n.s	n.s	n.s	n.s
관리와 수리가 편리한 주택	*	n.s	n.s	n.s	n.s	n.s
산책로가 잘 되어 있는 주거단지	*	n.s	n.s	n.s	n.s	n.s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주택	**	n.s	n.s	**	n.s	n.s

* p<.05, ** p<.01, n.s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함.

<표 9> 배경특성에 따른 은퇴 후 주택의 중요한 계획요소

성별	사례수	M	표준편차	t값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주택	남성	95	3.46	.561	-2.974**
	여성	140	3.67	.471	
에너지 절약형 주택	남성	95	3.19	.589	-3.117**
	여성	140	3.44	.602	
관리와 수리가 편리한 주택	남성	96	3.32	.533	-2.043*
	여성	140	3.46	.515	
산책로가 잘 되어 있는 주거단지	남성	95	3.29	.563	-2.351*
	여성	140	3.46	.528	
홈네트워킹과 홈오트메이션 기능이 잘 갖추어진 주택	남성	95	2.97	.736	-2.697**
	여성	139	3.21	.619	
거동이 불편한 거주자를 위해 휠체어나 이동보조기구의 사용을 고려한 무장애 주택 디자인	남성	94	3.15	.655	-2.584*
	여성	139	3.37	.616	

연평균 소득		M (사례 수)	Sheffe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주택	50,000달러 미만	3.45(71)	a
	50,000달러 이상~100,000달러 미만	3.54(81)	ab
	100,000달러 이상	3.71(73)	b
	계	3.57(225)	
F값		4.822**	
학력		M (사례 수)	Sheffe
거동이 불편한 거주자를 위해 휠체어나 이동 보조기구의 사용을 고려한 무장애 주택 디자인	고졸이하	3.36(76)	ac
	대졸	3.17(114)	b
	대학원 이상	3.40(43)	c
	계	3.27(233)	
F값		3.073*	

* p<.05 ** p<.01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에이징인 플레이스(aging-in-place)를 고려하여 재미한인 베이비부머가 은퇴 후 주거환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즉 주거생활상과 자기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받고 싶어 하는 주거생활지원서비스가 어떠한지 파악하고, 이것들이 배경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조사대상인 재미한인 베이비부머는 활발한 경제활동시기에는 미국에서 지냈으나, 은퇴 후에는 한국으로의 거주를 희망할 수 있는 특수한 계층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거생활상과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파악한 연구결과가 부족하여, 이들이 한국에서 노후를 보낼 경우에 어떠한 주거환경 계획적 고려가 필요한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은퇴 후에 희망하는 주거생활상과 주거생활 지원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기초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생활상에 대한 선호에 있어서는 재미교포 베이비부머들이 노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가생활이 가능한 곳에 거주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은 자녀나 친지 가까이 거주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베이비부머는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가 강하므로 자신이 사는 집이나 커뮤니티에서 여가생활이 가능하게 주거환경을 디자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여가생활이 가능한 주택내 공간을 계획하거나, 주거단지 내에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공용공간을 계획할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베이비부머의 연간소득에 따라 여가생활에 대한 가치관이 달랐으며 일자리의 중요성은 학력과 주택가격에 따라 달랐다. 즉, 이들은 경제적 조건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거생활상이 다르므로 베이비부머의 다양한 경제적 조건에 대응하여 경제적 조건이 양호한 집단에 대해서는 여가생활이 풍요로운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반면에 경제적 조건이 열악한 집단에 대해서는 자신의 주거환경 근처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커뮤

니티 내의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적 활성화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거리가 있는 주택에 대한 선호는 단위주택의 계획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간단한 손작업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파트타임 일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주거생활지원서비스 선호에 있어서는 은퇴 후 자신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가장 받고 싶은 생활지원서비스는 건강지원서비스, 그 다음은 여가생활프로그램으로 나타나 베이비부머는 건강지원 서비스 못지않게 여가 프로그램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이 세대는 평균수명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건강하고 긴 노후생활에 대비하여 커뮤니티 내에 다양한 건강지원 시설을 계획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한인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주거단지를 계획할 시에는 단지 내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단위 주택 내에서는 거주자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시설이 추가되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의 개발도 주거환경 내에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 계획과 더불어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베이비부머를 위한 주택계획 시 중요시해야 하는 계획요소로는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주택’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고, 그 다음은 ‘관리와 수리가 편리한 주택’, ‘산책로가 잘 되어 있는 주거단지’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주택에서는 주택 내외부의 범죄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리 및 수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단지주위에 산책로 등 자연환경을 고려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노인주택의 트렌드로 나타난 노인들의 정서적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공간계획²⁵⁾특성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고령친화적인 주거디자인을 기획하여 개발할 때 노인주택의 최근 트렌드에서 언급되었던 에이징 인 플레이스 개념을 더욱 확대하여 주택이나 단지의 계획 및 디자인뿐만 아니라 거주지역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노화과정에 따라 필요해지는 서비스를 융통성 있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²⁶⁾ 생활지원서비스를 어떻게 차별화하여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즉 주거디자인의 물리적 환경 특성인 하드웨어와 해당 주택이나 커뮤니티 내에서 향유할 수 있는 주거생활 지원서비스인 소프트웨어를 융합하여 함께 제공할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적 조건이나 학력에 따라서 차별화된 생활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박인숙, Active Aging을 위한 활동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8
2. 고령화 미래사회 위원회, 고령사회에 대비한 주거환경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04
3. 건설교통부·한국주거학회, 노인가구의 자립생활증진을 위한 주택개조기준 개발 및 보급방안 연구, 2005
4. 김미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중년층의 노후 주거선호 : 광주지역의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형을 대상으로,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17(1), 2006
5. 김미희·김석경, 베이비부머의 라이프스타일과 은퇴 후 선호하는 주거특성: 재미 한인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24(3), 2013
6. 김혜연·이연숙·윤혜경,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선호하는 주택 특성에 관한 연구 : 서울 강남지역 공동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1(5), 2010
7. 대한주택공사, 수요특성을 고려한 인텔리전트 아파트 개발연구 II. 서울, 건설교통부, 2001
8.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노인주택모델, 2007
9. 오찬욱, 노인재택을 가능하게 하는 주거디자인의 방향, 연세대학교 밀레니엄환경디자인연구소 국제심포지엄 발표집, 2002
10. 주거환경교육연구회, 주거환경의 계획과 평가, 교문사
11. 한경혜 외,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Korean Baby Boomers in Transition,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의 삶의 지평, Metlife Korea Foundation, 2011
12. Ahn, M., Future housing plans for older residents in rural Tennessee areas: Focusing on older adults aged 80 and older, Proceedings of 2010 Housing Education and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2010
13. Kim, S., Lee, Y., & Yim, M. Hi-tech amenities for the elderly: The technological assistance needs of elderly Koreans aging at home.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23(3), 2009
14. Partners for Living Communities. Aging in Place Initiative, 2013, http://www.nw.org/network/comstrat/agingInPlace/documents/agingInPlaceFAQ_000.pdf.
15. Smith, C. The challenges of intersecting housing and health care for the elderly: A view from both sides, 2002 <http://www.nw.org/network/comstrat/agingInPlace/articles.asp>
16. US Census Bureau (2012), State & County QuickFacts. <http://quickfacts.census.gov/qfd/states/26000.html>.

[논문접수 : 2013. 07. 18]

[1차 심사 : 2013. 08. 21]

[게재확정 : 2013. 10. 14]

25) 주거환경교육연구회, op. cit., p.59

26) 주거환경교육연구회, op. cit., p.58